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6호

### <칼럼 기고>

#### 그때도 지금도 틀린 것

글 / 중앙일보 채혜선 사회2팀 기자

#### 스포츠 폭력의 씨앗

글 /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 지역민과 함께 '운동'하는 직장운동부만이 생존할 수 있다

글 / 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

“국회 교육문화포럼, 스포츠폭력근절 토론회 개최”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학교 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기사 모아보기

###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사선2035] 그때도 지금도 틀린 것

중학생 때 단짝 친구는 국가대표를 꿈꾸던 운동부 학생이었다. 새벽 훈련을 마치고 등교했던 그는 아침마다 선배나 코치에게 그날 맞은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들려주곤 했다. 남이 알세라 교복 치마가 가려주는 허벅지 위쪽과 엉덩이를 하키채 등으로 맞았다. 그때 나는 “운동하면 원래 다 그래”라는 친구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다.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체육계 폭력 관련 대화를 나눌 때다. ‘그땐 다들 맞으면서 운동했다’는 내게 A는 단호하게 말했다. “폭력이 심했던 시기는 맞는데 다들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맞을 때마다 거세게 항의했거든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A의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은 문제 삼을 틈도 없이 그저 당연한 건 줄 알고 지내왔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내 고백에 A는 “다 그런 건 없다. 폭력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계 폭력 문제에서는 원인을 유독 피해자에게서 찾는 분위기다. “너만 잘하면 맞을 일 없다”는 논리다. 스포츠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4등’(2016)의 주인공 열두 살 준호. ‘만년 4등’인 아들을 보다 못한 엄마는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폭력적인 코치를 아들에게 붙인다. 영화 속 어른들은 “맞는 거보다 4등이 더 무섭다” “맞을만한 이유가 있으니 때린 것 아니냐”며 폭력을 묵인한다.

이처럼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폭력은 필요한 도구로 인식된다.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가 폭력이라는 수렁으로 이끄는 셈이다. 코치는 준호를 때린 후 말한다. “이거 다 너를 위해서야.”

정말 선수를 위한 일이었을까. 내 친구는 고된 훈련을 참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운동을 접었다. 국제 대회에서 숏한 메달을 따며 화려하게 선수생활을 마감한 A에게도 아름다운 기억만 남은 것은 아니다. “훈련 끝나고 집에 와 잠이 들면 엄마가 옷을 슬쩍 들어보곤 하셨대요. 몸에 멍이 들었는지를 확인했던 거예요. 청춘을 다 바쳐서 운동한 대가치고 너무 잔혹한 기억 같아요. 요즘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최근 체육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퍼지는 ‘폭력 미투’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바닥은 원래 다 그런 거다” “너(팀)를 위해서다”라는 궁색한 변명이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바뀐다.

# [정운수의 오프사이드] 스포츠 폭력의 씨앗



“모든 스케줄은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수시로 감독했고, 우리들은 땀짓을 할 수 없었다. 선수들이 일탈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 학교 앞 문방구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통제를 받았다.”

기성용 선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숙소 생활을 했던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기성용 선수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이 증언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위와 같은 통제된 생활이다. 일단 기성용 선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은 좀 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다고 사건의 심각한 정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된 채 생활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21세기의 벽두에.

이 정황 자체를 증대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년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와 학생선수 관련 전문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보고에 따르면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스포츠폭력의 씨앗은 이와 같은 초등학교 합숙소에서부터 비롯되어 중·고교 과정에서는 개인이나 팀 전체의 강력한 행위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폭력의 위계질서 문화 자체를 내면화하는 상황으로 고착된다.

이것이 최근의 사태가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양상에 더하여 스포츠폭력이라는 특수한 성격과 결합되어 있음을, 따라서 바로 그 ‘특수한 성격’을 직시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물론 학교폭력 일반의 양상 역시 성장 과정의 한 인간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끔찍한 면이 있지만, 스포츠폭력은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더해진다.

우선 시공간의 철저한 제약과 통제 상태에서 벌어진다.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그 피해 학생이 학교 공간과 또래 집단 사이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학생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합숙소와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이라는 통제된 시공간에서 생활한다. 통제된 훈육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 다행히 이러한 시공간에서도 정성껏 보살펴주는 감독이나 코치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폭력은 복합적·중층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지도자의 묵인이나 방조에 따른 ‘위임 폭력’, 당사자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감정 폭력, 사태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요하는 일종의 그루밍 폭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때리거나 맞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이며, 시공간의 통제와 압력을 행사한 지도자들이 ‘때린 적은 없다’고 빠져나가기 쉬운 알리바이가 된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고 할 때, 물리적 폭행의 여부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의 압박이 전개되고 공간의 통제가 작동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몇 %가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는가 하는 숫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생활 요소 전반에 대한 문화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뛰어난 선수와 그 부모가 일정한 문화권력을 형성하고 다른 학생들이 종속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스포츠의 특성상 한번 형성되면 직업선수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종목을 바꾸는 등의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것이 스포츠폭력의 특수성이다. 그러니 대한체육회가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라고 한 말은, 상황의 중대함이나 사태의 구조적인 양상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러 무시한 처사다.

문제의 핵심은 맨 앞에 인용한 상황이 십수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국의 합숙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간한 <합숙소 앞에 멈춰 선 인권>에 따르면 “침실에까지 CCTV를 설치해 학생선수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도 있었으며, 관등성명을 외치면서 매일매일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관건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물론 사태의 어떤 측면을 교육부와 협업하거나 실행의 어떤 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 스포츠정책과 그 사업에 있어 더 이상의 상위 단위를 찾을 수 없는, 최고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곳이 문체부다.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사태도 아니다. 그야말로 ‘직을 걸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 [김세훈의 스포츠IN] 지역민과 함께 '운동'하는 직장운동부만이 생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만든 표준 계약서가 조만간 공개된다. 체육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선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만든 계약서다. 수당, 휴일, 근무방식 등을 명기해 선수, 지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경기단체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강원도체육회는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체육회 직장운동부와 재계약했다. 선수단 규모는 지난해보다 1명이 늘었는데 운영비는 27억원에서 32억원으로 증가했다. 급여,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영한 결과다.

현재 전국 직장운동부는 1243개다. 시도청 소속 495개를 비롯해 시도체육회 200개, 경기단체 348개, 기업 109개, 공공기관 65개, 시군구 26개다. 운동부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경우, 운영비가 10~20% 정도 증가한다. 이게 운동부 축소,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비용 증가로 인한 운동부 축소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이 있다. 직장운동부 운영 목표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서 벗어나 지역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자체에 어떤 직장운동부가 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들이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그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 이유는 지역에서 운동부가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부가 지역에서 존재감을 갖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함께 운동하고 운동을 지도해주면 된다. 만일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배드민턴 직장운동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엄청난 기량을 가졌다. 이들이 우리 동네 클럽으로 와서 함께 운동한다면, 이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레슨을 제공한다면, 이들이 우리 자녀가 다니는 초중고를 찾아가 체육수업을 돕는다면, 현장 반응은 어떨까. 지역민과 학생이 반길 게 분명하다. 앞으로도 함께 운동하고 레슨도 계속 받고 싶을 게다. 직장 운동부 존재감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선수들도 은퇴 후 지도자 삶에 대비해 일반인 레슨을 먼저 경험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직장 운동부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운동부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만일 직장 운동부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도 운동부를 없애자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들과 함께 운동한 지역민이 해체를 반대할 게 분명하다. 지역활동에 열심인 운동부가 좋은 성적까지 올린다면 지역민으로부터 진정한 축하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도 지역민 표를 먹고 산다. 정책은 '표심'을 따르는 법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체육회, 지도자, 선수 간 공동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운동부를 성적으로 평가해 존폐를 논하는 관례에서 벗어나야 한다. 체육회는 운동부 체질을 성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도자, 선수도 운동을 통한 지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선도자가 돼야 한다. 지역봉사와 대민활동을 의무화하는 것, 선수단 평가 기준에 지역 활동 부문을 크게 반영하는 것, 장기계약으로 대회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 등이 선수 계약서에 명기돼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자기 훈련에 집중하고 성적으로 자기 가치를 입증해 선수로 대성하고 싶은 이들에게 지역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 체육회, 선수단의 눈은 지역민을 행해야 하고 손과 발은 지역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이 운동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운동부는 성적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직장운동부 운영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운동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체육회, 지역민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 국회 교육문화포럼, ‘스포츠 폭력 근절’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 최강욱 의원, 연구책임의원 김병욱, 강민정)이 지난 4일 오후 최근 잇따른 스포츠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 김승겸 중경고 교장,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前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박정희 대구시 북구의원, 교육부,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안민석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과 인권문화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문경란 대표(스포츠인권연구소)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미투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 대한 스포츠 인권 전담 감독관 배치를 비롯해 스포츠계 공익제보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합숙 훈련 금지를 방안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구시 북구의원도 각 지자체에 인권감시관을 배치하고, 학생선수들의 폭력경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체육 전공 졸업생들을 체육 전문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다.

이 권고안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 담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이행하여,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적 비교육·반인권적 훈련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비리조사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학교 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스포츠 윤리센터가 오늘(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스포츠 학교 폭력 집중 상담·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선수 중 학교 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 신고할 수 있다"며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누리집( [www.k-sec.or.kr](http://www.k-sec.or.kr))

이메일([with@k-sec.or.kr](mailto:with@k-sec.or.kr))

**전화(1670-2876)**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채진원 칼럼] '학폭'을 키운 국가주의적 스포츠정책, 시민중심으로 바꾸자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0>

[단독] 제2의 최숙현 막을 수 있을까...스포츠윤리센터, 신뢰도 타격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07545>

평창장애포럼 9일 개막 '장애포괄적 사회 발전' 담론의 장

<https://www.news1.kr/articles/?4234129>

"故 최숙현 사건 뒤 지자체 방치 있었다...관리인력 없어"

<https://www.fnnews.com/news/202103031007391046>

평창 영웅 '팀킴 영미'가 고향팀을 떠났다...위기의 경북체육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2983&ref=A>

잇단 '학폭투'로 선수 구단 학교 모두 '덜덜'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10>

스포츠 인권과 학교폭력,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785>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 "학교·엘리트·생활체육 선순환... 스포츠클럽 특화도시 만들 것"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874>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129건 접수, 32건 심의"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2001118>

인권단체, IOC 윤리위원장 반기문에 "베이징올림픽 취소" 압박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16400009?input=1195m>

[단독] 제2의 최숙현 막을 수 있을까...스포츠윤리센터, 신뢰도 타격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07545>

체육계 폭력 근절하려면...“메달 보다는 인권”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00363>

스포츠 선수 (성)폭력 사태, 학교폭력 근절되는 계기 삼아야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03>

[뜨거운 논란-학교폭력] '학폭' 터질 때만 땀질 ... '실효성 없어'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845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8454)

[SW이슈] 계속되는 체육계 폭행 논란, 근본적인 대안은 없을까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303510825>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